

두음법칙 적용에서 심한 차이 남북양측 신조어생산 중단해야

남북 언어 이질화 실태와 과제

현단계에서
남북양측이 신조어의
생산을 중지해야 하며,
1930년대에 마련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의
정신도 존중해야
한다.

“위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자면 교시원문을 다른 문장단위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발음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인용하여 전달할 때 사상감정을 생동하게 반영하는 것은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는 형상수법의 하나이다.”

이 글은 북한의 아나운서들을 위한 교재인 방송원화술(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88, pp.139-143)에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김일성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이외의 방송도 그들은 ‘김일성주의방송’으로 규정하여, 방송 전체를 “방송원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입장과 자세를 바로 가지고 옳은 화술수법을 적용하여 생동하게 형상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남한의 방송이 시청자 중심의 경어를 사용하여 정중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한 데 비해 현격한 차이가 난다.

‘출판보도물’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북한의 언론은 자유주의적인 언론과는 달리 주체의 언론이며 김일성주의 혁명의 언론이다.

여기에 맞춰 북한의 방송은 김

일성 유일체제를 위한 강력한 선전도구로써 철저한 통제를 받으며, ‘남조선혁명’을 위한 선전선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방송언어도 그들의 언어정책과 마찬가지로 획일적이고, 처방적이며, 인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김일성 부자의 이상화에 따른 경직된 언어이다.

또한 언어란 노동과 함께 노동을 통해서 성립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 노동생산성을 고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방송언어를 분석하는 기준은 다양하겠으나, 이 글에서는 한국방송에서 소개하고 있는 북한 방송에 따라 형태적 특징, 어휘적 특징, 발음상 특징, 화법적 특징으로 나눠 살펴 본다.

경어법에서 특히 이질감

형태적 특징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어법이다. 또한 경어법의 차이야말로 남북한 방송언어에서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남한의 방송언어가 시청자 중심의 경어를 사용하면서 국가원수일 지라도 지나친 경칭과 경어를 사

김상준

KBS 한국어연구회 간사

용하지 않는 데 비해 북한의 방송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만 최상의 경칭과 경어를 사용하고 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옥
- 아버지 원수님
- 어버이 수령님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 아버지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

이렇게 김일성부자에게는 최상의 경칭과 요란한 수식어로 높임말을 사용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우리의 방송보다 격이 낮은 표현을 하고 있다.

- 연합기업소 당위원회 홍인범의 보고
- 서호 수산사업소 선장 로력영웅 김용익이 토론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름 뒤에 호칭이 없는 언어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할머니, ○○○씨, ○○○어린이' 등으로 반드시 이름 뒤에 호칭을 붙여서 인격을 높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밖에 접미사에서 '~적(的), ~들'과 같은 말이 많이 사용된다. '~적'의 사용에는 다음과 같다.

- 따뜻한 형제적 인사

- 책임적이며 튼튼한 방어
- 빛나는 로력적 성과

이러한 말들은 우리나라 방송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남북한 모두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에 쓴다고 규정하고 있는 '~들' 접미사가 북한방송에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 어린이들이 누구들인지 아세요.
-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 전체 인민의 뜨거운 마음들이
- 외신보도들에 의하면
-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렇게 '누구들, 토론들, 마음들, 보도들, 성과들'과 같은 말은 남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방송에서 많이 나타난다.

어휘적 이질감

분단 이후 변화한 남북한 언어가 상당한 거리로 벌어지기는 했으나, 북한의 방송을 듣고 이해하지 못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들은 미루어 짐작하거나 사전을 찾아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뜻풀이는 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을 참조했다.

- 일떠서다→힘차게 일어서다.
예문) 건축면적을 가지고 일떠선
- 테제→어떤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 그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방도, 방침 등을 함축하여 명제적으로 서술한 강령

예문) 테제 발표

- 양양→기세나 열의 같은 것이 드높아 지는 것
예문)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으로써
- 건발기→이발한 뒤에 머리칼을 말리는 기구. 다듬은 말로 머리말리게
- 만풍년→모든 곡식과 열매가 다 잘되고 잘 여물어서 크게 풍년이 든 것
예문) 올해를 만풍년으로 빛내인 기쁨을 안고
- 담화→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
예문) 텔레비존 방송기자와 담화했습니다.
- 풀김치→집짐승에게 더 많이 먹이고 소화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김치 담그는 것처럼 가공처리한 풀먹이
예문) 영양가 높은 풀김치
- 두리→하나로 뭉치게 되는 중심의 둘레
예문)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 로작→〈로동계급의 혁명리론 발전에서 커다란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고전적 저서〉를 이르는 말.
예문)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이밖에 남북한이 같은 어휘이지만 의미를 달리하는 말이 많다. 이 경우는 외교문서나 양측의 협상이

북한의 방송언어는 치졸한 표현이 많지만 언어규범의 적용에서 획일적이고 인위적이며, 처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언어소화 차원에서는 우리보다 앞선다고 봐야 한다.

나 회의 때 의미의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측 관계자를 만나는 사람들은 북한의 문화어에 대한 조예가 깊어야 한다.

또한 어휘 부문에서는 수의 표현의 특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방송에서는 '키로, 그람, 톤, 메터, 센찌메터'와 같은 외래어 앞에 '일, 이, 삼, 사'와 같은 한자어가 아니라 '한, 두, 세, 네'와 같은 고유어 계열의 수관형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 열 키로그램의 떡이를 얻어 낼 수 있고
- 한 톤 열한 키로그램을 증수 했으며
- 백반 네 그람
- 정보당 스무 톤 이상의 거름을 내기 위해
- 열 톤이 넘은 알곡

이밖에 한자어와 외래어의 경우는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에 의해 많은 변형과 왜곡 현상이 나타나 의미변별에 혼란을 줄 우려가 많다.

발음의 차이

우리말은 글자는 같으면서 발음이 다른 말이 많으며, 장단음의 차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 장단음의 구분은 남한의 방송보다 북한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도 '조선문화어문법'이나 '조선말화술' 등의 저술에서 그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의 언어생활에서는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조선말사전'에도 장단음 표시가 돼있지 않은 것을 봐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은 장단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도, 김일성이나 김정일 관계 기사에서 그들을 수식하는 말은 짧은 말을 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짧은 음을 길게 발음하는 수의적인 발음의 대표적인 예이다.

-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 당:과 수령
-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
- 김정일 동지의 초:청으로
- 자:신들이 먼저 로작의 사상을 깊이 연구할 데 기초해서
-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 천구백구:십년
- 고향마을 새:세대

남북한 방송언어의 발음에서 가장 심한 차이는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이다. 북한에서는 '량심, 려관, 녀자, 년세, 락관, 로동'과 같이 두음법칙을 무시한 표기도 하고 발음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서, 역량, 낙천, 노동'과 같이 두음법칙을 적용한 발음도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규률, 대렬, 배렬, 사렬(沙列)' 등의 말은 표기를 '률, 렬'로 하지만 발음은 '율, 열'로 하고 있다.

북한말에는 경음화 현상이 많다.

'혁명적, 핵심적, 헌신적, 락관적'의 경우 '적'을 '척'으로 발음하고 있다.

평양이라는 말은 '평양'으로 하는 발음도 가끔 나타나지만 거의 대부분 '평양'으로 발음하고 있으며, '피양'이라는 발음도 나온다.

북한의 화법

화법은 듣는 사람에게 어떤 지식이나 의견, 감정, 소원 등을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능력의 하나이다.

북한에서는 화술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화법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이 철저히 구현되고, 김일성의 주체적인 언어사상의 구현인 평양말에 의하여 창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방송언어는 선전선동이 그 주된 목표이며, 심지어 사실보도가 생명인 뉴스까지도 선전선동을 위해 '보도'가 아닌 의도적인 '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투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저질스러운 욕설까지 사용되고 있다.

- 정일봉상 쟁취를 위한 축구경기대회
- 투쟁을 적극 벌려 먹이기지를 조성했습니다.
- 생산과 건설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해서
- 겨울철 물고기잡이 전투
- 논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전투
- 탄부들은 당의 충직한 혁명전사
-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가

이렇게 전투적인 용어의 사용이 많음에 비해 언어의 전달속도는 남한의 방송보다 느리게 나타난다.

이것은 내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강세를 많이 두고, 속도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하기 때문이다.

신조어 생산 중단을

남한의 언어정책이 자유민주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유방임적인 경

향이 많아 언어순화 차원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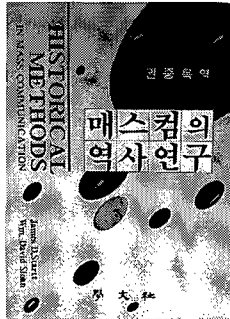
북한의 방송언어는 치졸한 표현이 많지만 언어규범의 적용에서 확실적이고, 인위적이며, 처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범을 지키고 있어서 언어순화 차원에서는 우리보다 앞선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남북언어, 특히 방송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언어 전반에 걸쳐 각 부문별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 따른 전제조건은 남북한이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고, 비판에 대해 겸허해야 한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남북양측이 신조어의 생산을 중지해야 하며, 1930년대에 마련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의 정신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표준어의 보급과 교육에 박차를 가해 표준어가 북한의 문화어에 대응하는 언어세력이 될 수 있도록 국력을 기울인 언어정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

(새로 나온 책)



매스컴의 역사연구

제임스 스타트 지음 · 권중록 옮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쓰이는 다른 방법론과는 달리 역사연구는 인간경험 가운데 거의 모든 영역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 있다.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에 쓰이는 방법론은 인간의 삶을 완전히 조화해 낼 수 없지만, 역사연구는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방법론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제임스 스타트(James D. Startt)의 'Historical Methods in Mass Communication'을 권중록씨(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사)가 번역한 '매스컴의 역사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역사학자와 학생들에게 적절한 연구 방법을 찾아줄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 역사관련 연구를 하는 학생에게 모든 연구과제에 필요한 연구의 근본적 지침을 알게 하고 숙련된 연구자에게 참고자료와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사의 본질·기본과정과 기술 역사자료 찾기, 연구결과를 글로 쓰기, 결과 제시와 발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학문사, 신국판 261쪽, 1만2,000원>